



1970~80년대 한국 록 음악을 이끈 송공매의 멤버 구광모(왼쪽)와 배철수가 40년 만에 재결합해 전국투어를 연다. 사진은 두 사람이 2004년 KBS 1TV 특집프로그램 '추억의 빅 콘서트' 무대에 함께 오른 모습. 사진제공 | KBS

가요계 “어게인 8090”

조정현·이규석 등 당시 발라드 가수 7월 공연
김원준·롤라 등 댄스 가수도 '타임캡슐 콘서트'
'40년만에 재결합' 송공매 9월 투어는 벌써 화제



가수 조정현·K2 김성면 등 199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 가수들이 펼치는 공연 '추억의 90~00 콘서트 어게인'의 포스터. 사진제공 | 마포구

1980년~2000년대 레트로 음악 열풍이 불어올 조짐이다. 당시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댄스, 발라드, 록 등 장르별 가수들이 한 무대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복고 열기를 지필지 관심을 끈다.

조정현, 그룹 K2의 멤버 김성면, 이규석, 에메랄드캐슬 지우, 이정봉 등 1990년대 대표 발라드 가수들이 7월 2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콘서트 '어게인'을 연다. '발라드 황태자들의 화려한 부활'을 콘셉트로 내건 무대에서 당시 노래방 차트를 휩쓸었던 발라드 히트곡을 들려준다.

댄스가수들도 총출동한다. 김원준, 그룹 롤라를 비롯해 코요태, 태사자 등이 7월 16일 경기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2022년 타임캡슐 슈퍼콘서트'를 펼친다. '백투더 1999' s'라는 부제를 단 이들은 1990년대 말로 시간을 돌려 당시 분위기를 마음껏 느껴보겠다는 각오다. 그룹 R.ef와 소찬휘, 다비, 김현정 등도 출연한다.

재결합한다는 사실만으로 화제를 모았던 송공매는 전국투어에 팬들과 만난다. 1970~1980년대 한국 록 음악을 이끌었던 송공매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1·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콘서트 '열망'을 연다. 밴드를 대표하는 배철수와 구창모가 40년 만에 함께 무대에 올라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두 사람은 "긴 시간 송공매와 함께해준 팬들을 위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특별한 공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공매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공연뿐만 아니라 1990년대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게 하는 LP도 다시 나온다. 음반 기획·제작사 사운드트리와 프로듀서 겸 작곡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옛 라인음향) 회장이 손잡고 1990년대 제작한 일부 앨범을 새롭게 LP로 선보인다. 김 회장은 당시 대중가요계를 장악했던 라인음향(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며 김건모, 클론, 박미경 등 스타들을 배출했다.

DB 배강률 음주운전사고...경찰 조사중

프로농구 원주 DB 배강률(30)이 음주운전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DB 구단은 2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강률이 지난 주말 음주운전사고 직후 구단에 자진신고를 해왔다. 현재 경찰조사 중"이라며 "구단은 연맹과 팬 여러분께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며, 소속 선수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구단은 또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KBL도 28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배강률은 2014시즌 서울 삼성에 입단해 프로로 데뷔했고, 2021~2022시즌 7경기에 출전해 평균 0.3점·1.0리바운드를 기록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LPGA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서 부활 우승 쓴 전인지



기다림이 길었고, 아픔이 남달랐기에 우승이 확정된 순간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전인지(오른쪽)가 27일(한국시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된 뒤 눈물을 흘리자 캐디 딘 허든이 팔을 내밀어 위로하고 있다. 둘은 포옹하며 우승 순간을 자축했다. 베세즈대(미 메릴랜드주) | AP뉴시스

‘메이저 퀸’ 다음은 커리어 그랜드슬램!

韓美日 오가며 총 8번 메이저 우승
LPGA 3개 메이저 석권한 강심장
전 세계 7명뿐 ‘커리어그랜드슬램’
한국선수론 박인비가 유일한 달성
8월 AIG 여자오픈 새역사 첫 도전

연도	투어	대회명
1	2013	KLPGA 한국여자오픈
2	JLPGA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파스컵
3	LPGA	US여자오픈
4	2015	KLPGA 하이브리드 챔피언십
5	JLPGA	일본여자오픈
6	KLPGA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7	2016	LPGA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8	2022	LPGA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 투어별 통산승수(메이저승수)
LPGA 4(3), KLPGA 9(3), JLPGA 2(2)

메이저대회에서 부활을 신고한 ‘메이저 퀸’ 전인지(28)가 이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정조준한다.

전인지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세즈다의 롱그래스힐 컨트리 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900만 달러·116억1000만 원)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5개를 묶어 3타를 잃었다. 하지만 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 렉시 톰슨(미국), 이민지(호주·이상 4언더파)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018년 10월 국내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이후 3년 8개월 만에 LPGA 통산 4승을 달성하며 우승 상금 135만 달러(17억 5000만 원)를 손에 넣었다.

오랜 부진을 털어내고 따낸 우승. 더욱이 메이저 퀸답게 메이저대회에서 부활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더 반갑다. 전인지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며 총 8개의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수집한 메이저 퀸이다.

201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해 그해 6월 메이저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5년 5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파스컵’ 정상에 오른 뒤 두 달 후 LPGA 투어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을 제패했다.

US여자오픈 우승 2주 뒤 KLPGA 투어 ‘하이브리드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서고, 그해 10월 ‘일본여자오픈’과 KLPGA 투어 ‘KB금융 스타 챔피언십’까지 휩쓸며 유독 메이저대회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2013년 한국, 2015년 미국과 일본에서 내셔널 타이틀을 차지하며 한·미·일 내셔널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는 진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US여자오픈 우승을 발판 삼아 2016년 LPGA 투어에 정식 데뷔한 그는 그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다시 정상에 섰다. 21언더파 263타로 남녀 메이저 대회 역대 최소타 신기록을 작성하며 세계골프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해 신인왕과 최저타수까지 거머쥐었다.

2018년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LPGA 통산 3승을 신고한 뒤 오랜 슬럼프를

겪었지만 3년 8개월 만에 또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 정상에 섰다. 자신의 오랜 부진을 털어내며 LPGA에서 7개 메이저대회 연속 무승에 그쳤던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메이저 우승 갈증까지 말끔히 떨쳐냈다.

극적인 부활 드라마를 연출한 전인지는 이제 LPGA 5대 메이저대회 가운데 4개를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에도 전한다. 2013년 에비앙 챔피언십이 메이저대회로 승격하며 LPGA 투어에선 메이저대회 총 5개지만 이 중 4개 대회에서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으로 인정한다.

US여자오픈과 에비앙 챔피언십,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차례로 우승한 전인지는 AIG 여자오픈이나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트로피를 추가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8월 초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AIG 여자오픈이 큰 목표로 가는 첫 기회다. 현재까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7명뿐이다. 한국 선수 중에선 박인비(34)가 유일하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운명의 16번홀’ 더블보기에 울다 버디로 웃었다

3년 8개월만에 우승하기까지

3R 치명적 실수...4R선 선두 버디
1R 61년만에 최다타수차 1위 타이

2018년 10월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LPGA 통산 4승을 달성한 전인지(28)는 이후 오랜 부진에 시달렸다. 이듬해 상금 순위는 67위까지 추락했다. 2020년 초 골프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그는 코로나19로 투어가 중단된 틈을 타 흔들린 샷과 마음을 다잡았고, 그해 상금 순위를 37위로 끌어 올렸다. 2021년엔 23개 대회에 나서 8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상금순위 25위에 올라 부활 조짐을 보였다.

올 시즌 들어선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공동 2위 외에 톱10 성적이 없었지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마침내 ‘메이저 퀸’다운 부활 드라마를 연출했다.

1라운드에서 버디 9개와 보기 1개를 묶



우승을 다투던 전인지(왼쪽)와 렉시 톰슨의 희비는 4라운드 17번 홀에서 갈렸다. 침착하게 파를 지킨 전인지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고, 보기를 적어내며 1타 뒤지게 된 톰슨의 표정은 어두웠다. 베세즈대(미 메릴랜드주) | AP뉴시스

어 무려 8언더파를 몰아치며 5타 차 1위에 오른 것이 밑바탕이 됐다. 18홀 5타 차 선두는 1961년 미키 라이트(미국) 이후 이 대회에서 61년 만에 나온 18홀 최다 타수 차 선두 타이 기록이었다.

2라운드에서 3타를 더 줄여 11언더파를 기록하며 2위 그룹과 격차를 6타 차로 더 벌인 전인지는 본선에 들어 고전했다. 3라운드 16번(파5) 홀에서 더블보기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최종 순위 (파72)			
순위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타수
우승	전인지	5언더파 283타	64-69-75-75
공동 2위	이민지(호주)	4언더파 284타	73-68-73-70
	렉시 톰슨(미국)		74-67-70-73
4위	아타야 티피쿰(태국)	3언더파 285타	73-72-68-72
	하타오카 나세(일본)		71-72-75-69
	김효주		73-72-71-71
공동 5위	한나 그린(호주)	1언더파 287타	71-69-72-75
	최혜진		69-72-70-76
	김세영		71-69-71-76

* 지은희 4언더파 공동 10위, 박인비 3오버파 공동 25위, 고진영 4오버파 공동 30위, 유소연 7오버파 48위, 김아림 8오버파 공동 50위

범하는 등 3타를 잃어 공동 2위 그룹과의 간격은 3타 차로 좁혀졌다. 최후라운드에선 렉시 톰슨(미국)에게 2타 차로 밀리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출발부터 좋지 않았다. 2번(파3), 4번(파4), 6번(파5) 홀에서 잇달아 보기를 범하며 경기 초반 버디 2개를 뽑아낸 톰슨에 단독 선두를 내줬고, 9번(파5) 홀에서 다시 1타를 잃으며 전반을 마칠 때 톰슨에 2타 차로 뒤졌다. 11번(파5) 홀에서 까다로운 중거리 퍼트를 떨어뜨려 첫 버디를 적어냈지만 톰슨도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아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다.

운명의 승부처는 3라운드때 전인지가 더블보기를 적어냈던 16번 홀이었다. 2타 차가 계속되던 순간, 전인지는 버디를 잡았고 톰슨이 보기에 그치면서 단순 에 돌은 다시 공동 선두가 됐다. 흔들린 톰슨은 17번(파4) 홀에서 재차 1타를 잃었고, 전인지는 먼저 경기를 끝낸 이민지(호주)의 최종 스코어 4언더파를 확인한 뒤 마지막 18번(파4) 홀에서 침착하게 파를 지키며 결국 톰슨과 이민지를 1타 차로 제쳤다. 나흘 내내 1위를 지키며 2016년 에비앙챔피언십에 이어 개인 2번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LPGA 통산 4승을 장식했다.

아타야 티피쿰(태국)이 3언더파 4위에 자리했고, 톰슨과 공동 2위로 출발해 기대를 모았던 최혜진(23), 김세영(29)은 4라운드에서만 나란히 4타씩을 잃으며 김효주(27) 등과 함께 1언더파 공동 5위에 만족해야 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과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다(미국)는 나란히 4오버파 공동 30위에 랭크됐다.

김도현 기자